

#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름	정세현	소속	기계시스템공학과
연수 국가	일본	해외 연수 기관	수도대학도쿄 (TMU)
연수 기간	2019.01.06~01.26		

## 지원동기

일본에서 여행목적이 아닌 긴 기간 동안 살아보고 싶지만 교환학생은 기간이 너무 길고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는 부담이 있어서 꺼렸는데 마침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방학기간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학교홈페이지에서 발견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했다기 보다는 3주간이지만 관광지 아닌 곳에서 일본인들의 문화나 생활양식을 직접 보고 느끼고 본인이 일본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가능해보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 비용

해외대학에 내야하는 연수비용 120만원, 항공기 40만원, 현지에서 사용한 돈 70만원 학교에서 지원해준 40만원. 총합 200만원 조금 넘게 쓴 것 같습니다. 주말에 여행을 다니거나 쇼핑을 하면서 쓴 돈이 조금 많아졌는데 아껴 쓴다면 이것보다 훨씬 싸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정도의 수업이었으며 특별한 날이 아니면 4시에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내용은 일본어 공부라기보단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애니메이션, 음악 등)를 공부한다는 느낌의 수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문화에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듣는 수업뿐만 아니라 서예나 야외활동도 있고 남자라면 본인이 원한다면 가부키화장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과 마지막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도 제공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만족했지만 특히 필드트립으로 갔던 지브리 박물관과 타치카와 만화파크가 인상깊었습니다. 지브리 박물관에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여러 작품의 제작 과정 소개나 소품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돼 있어서 지브리의 작품은 잘 몰랐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하였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지브리 작품을 보고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치카와 만화파크는 만화방 같은 곳인데 좀 더 넓고 책 종류가 많았습니다. 입장료 400엔을 내고 들어가면 하루종일 자리를 잡고 만화를 읽을 수 있고 점심에는 간단한 레토르트 식품을 팔아서 끼니도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땐 프로그램 일정상 느긋하게 만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혹시 가게 될 일이 있으면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만화를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였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문화차이 및 주의할 점

일본은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중 하나이고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하던 행동을 일본에서 그대로 하면 안됩니다. 본인은 아무 악의 없이 한 행동이 일본에선 실례를 끼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3주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대화하며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꽤 오랜 시간동안 살아보고 여러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며 인생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 뽑힐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만족했고 우리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단기연수나 교환학생 같은 국제교류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

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금오공대 국제교류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